

# 병원 재직 간호사의 임상실습지도교수 경험

한 영 미

군산간호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Experience as a Nursing Clinical Faculty of Working Nurses in the Hospital

Han, Young Mi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unsan College of Nursing, Gunsan, Korea

**Purpose:**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experience of nursing clinical faculty of nurses in hospitals. **Methods:** It is a qualitative study that collects data through interviews and applies phenomenological analysis methods. **Result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xperiences of five working nurses in hospitals serving as nursing clinical faculty, the main categories were 'Recognizing the collaborativ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chool and training hospitals', 'Difficulties with dual roles', 'Striving for excellence as clinical faculty' and 'Practical training as an opportunity for reflection'. **Conclusion:** It is effective for working nurses in hospitals to serve as nursing clinical faculty responsible for the clinical training of nursing students, as it allows them to provide the latest clinical practices. However, there is a need for policy support to ensure a clear distinction between their regular duties and training responsibilities and provide opportunities for acquiring teaching skills, and other related support.

**Key Words:** Faculty, nursing; Nurses; Qualitative research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의료의 눈부신 발달과 건강한 생활습관에 대한 관심의 증가 및 건강생활 실천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에도 영향을 주어 간호사 인력의 꾸준한 증가로 연결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3). 이와 같은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맞추어 미래의 간호인력인 간호대학생이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갖추도록 간호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간호학은 전문적 지식기반의 실천중심학문으로(Song & Kim, 2013) 우리나라 간호교육은 국내·외 보건의료 현장과 사회적 요구에 부합되는 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을 목표로 한다(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KABONE], 2024). 이와 같은 간호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은 필수적이다. 특히 임상실습교육은 이론과 실무를 상호연결하도록 하는 중요한 교육과정이다(Choi & Lee, 2012). 임상실습교육은 간호대학생들에게 이론교육에서 습득한 전공지식을 이론적 근거를 기반한 기술과 태도로 통합하여 간호실무에 적용하도록 하고 또한 간호실무에서 이루어지는 간호수행 내용을 전공지식과 연결되도록 하면서 미래의 실무 간호사로서의 역량을 갖추도록 함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이며, 더 나아가 안전하고 유능한 신규간호사를 개발하기 위해서 중요한 과정이다(McPherson, 2019).

우리나라의 임상실습교육은 간호대학생들이 질적인 간호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그 기준을 제시한 병원, 시설, 지역사회기관 등의 임상실습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임상실습교원으로 전임교원과 겸·초빙 교원 및 강

**주요어:** 임상실습지도교수, 재직 간호사, 임상실습, 질적연구

**Corresponding author:** Han, Young Mi

College of Nursing, Jeonbuk National University, 567 Baekje-daero, Deokjin-gu, Jeonju 54896, Korea  
Tel: +82-63-450-3867, E-mail: hym7802@kcn.ac.kr

Received: Nov 30, 2024 / Revised: Dec 21, 2024 / Accepted: Dec 21, 2024

사인 비전임교원이 임상실습지도교수로서 임상실습교육을 운영하고 실습단위별 자격을 갖춘 현장지도자가 실습지도에 참여하고 있다(KABONE, 2024). 임상실습지도교수는 간호대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역할모델로서 간호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Kim, 1995). 또한 임상실습지도교수의 전문성은 간호대학생의 학습활동에의 적극적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Kim et al., 2018), 학생들의 전문직 역할모델이 되기도 하므로(Kim, 1996; Yu et al., 2008) 그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듯 간호학에서 임상실습교육의 비중이 큰 만큼 교육에 대한 지식과 경험뿐만 아니라 최신 임상 지식과 실무를 갖춘 간호교육자가 요구되고 있다(Kim et al., 2007).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지도교수의 자격기준으로 풍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라고 하였으며(Kim, 1996),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들은 더 전문적이고 풍부한 임상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임교수가 임상실습교육을 담당해야 한다고 하였다(Chung et al., 2015).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기관 소속이 아닌 임상실습지도교수는 실습교육기관 활용에 있어 제한적이어서 현장의 간호대상자를 대면하여 학생실습교육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임상실습교육의 효과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여(Shin et al., 2017; Yang et al., 2020) 임상실습지도교원의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 임상실습교육의 효과가 달라진다고 보았다. 전임교원인 임상실습지도교수를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에서도 교수로 전환하면서 임상에서 떨어진 시간만큼 임상새로운 내용을 보며 위축되어 이론적인 내용에 치중하게 되는 등 교수로서 실습지도에 부족함을 느꼈다고 하는 등(Song et al., 2010) 임상실습지도교수에 대해 각기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임상실습지도교수는 실습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임상실습의 적절성을 확보하면서, 간호대학생이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실무에 통합하여 전문적 능력을 갖춘 간호사로 성장하도록 직접 임상실습교육을 하는 간호교육자로 다양한 역할을 함에도(Chung et al., 2015) 연구자별로 관심 주제가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임상실습지도교수 스스로의 입장에서 간호교육자로서의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국내연구에서 임상실습지도교원과 관련된 연구는 임상실습강사의 경험 연구(Kang et al., 2014; Lim et al., 2019), 전임교원인 실습지도교수와 관련된 연구(Song et al., 2010)가 있었으나 실습기관 소속인 임상실습지도교수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러므로 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간호사가 임상실습지도교수로 실습교육을 한 경험은 어떠한지 그들의 관점에서 경험의 의미를 탐색하고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은 의

미가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타난 현상으로 임상실습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간호사이면서 간호대학생 임상실습지도교수로 활동한 경험에 대한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여 현장실습교육의 개선 또는 보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병원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로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교육을 수행한 임상실습지도교수로서의 경험을 탐색하여 현상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더불어 임상실습교육과 관련된 간호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질문은 “병원 재직 간호사로서 간호대학생 현장실습교육을 수행한 임상실습지도교수 경험은 어떠한가?”이다.

##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병원에 재직하고 있으면서 간호대학 임상실습교육을 담당하여 임상실습지도교수 업무를 수행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면담에 의해 자료를 수집하고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적용한 질적연구이다.

###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 선정기준은 병원에 근무 중인 간호사이면서 한 학기 이상 임상실습지도교수로서 현장실습교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본 연구의 목적, 면담 진행방법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표현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자 중 3명은 본 연구자와 실습교과목을 같이 수행한 사람으로 목적적으로 표본 추출하였고, 나머지 2명은 연구참여자로부터 본 연구대상자로 적합한 대상자를 소개받는 눈덩이식 표집을 하였다. 참여자에 대해 연구의 목적과 진행방법에 대해 전화로 설명하고 자발적 동의를 받았고, 참여자가 원하는 장소로 방문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후 진행하였다. 참여자는 총 5명으로 모두 여성이며, 연령은 48세에서 58세 사이였다. 임상 경력은 12년에서 33년으로 평균 27.7년이었다. 참여자들은 모두 일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재직 중이었다. 참여자의

직책은 모두 간호부 소속으로, 중간관리자 3명과 최고관리자 2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겸임교수로 위촉되어 임상실습지도교수로서 현장 실습 교육을 수행한 경험이 있었으며, 그 기간은 1개 학기에서 3개 학기까지 다양했다.

### 3.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면담 예상 소요시간, 면담 내용의 녹음에 대해 면담 시작 전에 구두 및 서면으로 설명하여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 전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참여자의 익명성이 보장됨을 안내하였다. 연구 종료 후에는 자료의 저장 형태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난 뒤 파쇄하거나 삭제할 것임을 명확히 설명하였다. 또한 참여자가 원하면 연구 진행 중이라도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렸고 자발적인 참여에 대해 동의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에게는 소정의 사례를 하였다.

### 4. 연구자의 훈련과 준비

연구자는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질적연구방법론을 수강하며 심층 면담을 주제로 한 연구에 대해 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다. 또한, 질적연구방법을 적용한 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한 경력이 있으며, 질적연구 관련 학술대회와 세미나에 꾸준히 참가하는 등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수련을 하였다.

### 5.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24년 8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이루어졌다. 면담은 참여자와 일대일로 진행하였다. 면담이 편안한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하는 면담 일시와 장소를 사전에 확인하였다. 면담은 각각의 참여자가 원하는 일시에 참여자가 원하는 장소인 참여자의 사무실, 참여자의 병원 회의실, 커피숍 등에서 이루어졌다. 1인당 면담 소요시간은 약 40분~1시간 20분 정도였다. 연구 주제인 임상실습지도교수 경험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경청하려고 노력하였고, 이해가 되지 않거나 확인이 필요한 내용은 보조질문을 하거나 되물어 경험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다. 녹음 자료를 필사하면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내용은 전화나 SNS를 이용하는 등 더 이상의 새로운 내용이 없어 포화상태가 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면담을 진행하였다.

### 6.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Colaizzi (1978)가 제시한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집된 녹음 자료를 천천히 들으면서 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연구자의 느낌을 성찰하였고, 녹음 자료와 필사 자료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면서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선택하여 의미 있는 진술을 구별해 내었다. 중요한 진술을 구체적인 단어로 표현하여 의미를 형성하였고, 형성된 의미들을 주제, 주제묶음으로 정리하여 범주화하였다. 분석된 자료들을 탐구현상과 통합하여 최종 기술을 하였다. 연구참여자에게 경험과 면담 결과에 대해 일치하는지에 대한 견해를 확인함으로써 타당성을 확보하였고, 질적연구에 경험이 있는 간호학 교수 1인으로부터 분석된 자료에 대해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 연구결과

병원에 재직 중인 간호사 5명의 임상실습지도교수 경험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4개의 범주, 8개의 주제묶음, 14개의 주제로 도출되었다(Table 1).

#### 범주 1. 대학과 실습병원은 협력적 관계로 인식함

참여자들은 대학을 병원과의 협력적 관계로 여기고 임상실습지도교수가 부족하다며 겸임교수 의뢰가 왔을 때 자신의 주어진 업무 때문에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학생실습교육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도움을 주고자 수락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간호부서의 관리자로서 실습 온 간호대학생들을 미래의 동료로 여기고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했으나 입원 환자의 사례 종류와 관찰 또는 수행할 기회가 제한적인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였고, 학생들에게 실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무지식을 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범주 1의 주제묶음은 '대학과 실습병원은 협력적 관계로 인식함'이었다.

##### 1) 임상실습지도교수 부족을 공동의 문제로 여김

참여자들은 대학을 병원과의 협력적 관계로 여기고 있었다. 대학으로부터 임상실습지도교수가 부족해 겸임교수 의뢰가 왔을 때 자신의 업무로 인해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학생실습교육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도움을 주고자 수락하였다고 하였다.

**Table 1.** Experience as a Nursing Clinical Faculty of Working Nurses in the Hospital

Categories	Theme clusters	Theme
Recognizing the collaborativ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chool and training hospitals	Considering nursing clinical faculty shortage as a shared issue	· Striving to be supportive
Difficulties with dual roles	Confusion and conflict from dual roles	· Feeling embarrassed · Feeling sorry toward students
	Struggling with role overload	· Ongoing work responsibilities at the hospital even when on leave for practical training · Lacking personal time due to using leave
Striving for excellence as clinical faculty	Incorporating the latest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into practical training	· Teaching the current on-site clinical practices I am most familiar with · Excluding theoretical concepts that are not applicable to on-site clinical practices
	Taking full advantage of the position as a staff member at the training institution	· Training nursing practices tailored to situations in a familiar practice environment
	Desire to enhance teaching methods for effective education	· Relearning for practical training · Struggling to identify appropriate teaching methods
Practical training as an opportunity for reflection	Reflecting on myself	· Recognizing overlooked aspects of my work · Acknowledging that there is still more to learn
	Reflecting on my surroundings	· New nurses who forget the knowledge they gained during their student days · Nurses who do not join student training

저도 그게 어렵다는 걸 알지만 일단은 학교 사정이 그러니 지역사회에 있는 병원이 ‘아 이걸 도와주지 않으면 안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하게 됐어요.(참여자 2)

우리 병원에 이제 실습이 나왔고, 실습을 나왔는데 이제 학교에서 간혹 임상현장지도교수를 굉장히 없애가지고 못 찾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사실 그런 것도 모멘트가 됐어요. 나도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참여자 5)

**범주 2. 이중적 역할로 힘겨움**

범주 2에서는 참여자들은 병원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간호대학의 겸임교수로 현장실습교육을 담당하는 임상실습지도교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휴가를 사용하면서, 주어진 시간 안에 직장업무를 몰아서 하는 것에서 비롯된 업무 과다와, 직장업무와 실습교육 시간을 겹치지 않도록 시간적 안배를 두는 것에 부담을 느꼈으며, 이것들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 범주의 주제묶음은 ‘곤혹스러운 이중적 역할’과 ‘역할 과부하를 느낌’이었다.

**1) 곤혹스러운 이중적 역할**

참여자들은 이중적 역할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집담회 중에 업무상 전화 등의 연락이 오면 업무처리를 위해 받을 수밖에 없고, 예기치 않은 업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담회 일정 등을 변경해야 할 때는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와 소속 의료기관의 직원 역할에 충실한 것이 우선이므로, 현장실습지도교수는 계속하고 싶지만 차후 다시 의뢰가 오더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업무의 내용에 따라 임상실습지도교수는 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하였다.

병원에서 연락이 와요 이제 한 번씩. 왜냐하면 제 의사 결정을 필요로 할 때 컨퍼런스 중간에도 물론 학생들한테 양해를 구하기는 합니다 먼저.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참여자 4)

약간 그런 보람도 있고 내가 성장하는 좀 계기가 되는 것 같고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뭐 음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제가 만약에 뭔가를 막 보고서를 써야 되고 새롭게 뭔가 추진하는 일이 있거나 그러면 할 수 없다고 제가 판단해요.(참여자 1)

**2) 역할 과부하를 느낌**

참여자들은 실습교육 진행을 위해 휴가를 쓰지만 다른 직원들은 참여자들이 휴가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병원에서 실습교육을 하고 있으면 근무 중으로 알고 업무 연락을 주어 어쩔 수 없이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또한 연차가 높아 휴가일 수가 많지만 실습교육으로 계속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다 보니 개인 생활을 위한 휴가 사용은 어렵다고 하면서 시간적 제약으로 변화된 역할 수행에 대해 힘겨워 하였다.

뭔가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 게 조금 업무하고 병행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힘들었죠. 뭔가 가르쳐야 되는 시간들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제 업무와 피해서 어떻게든지 할려고 하니가 마음이 급한 거예요.(참여자 1)

연차를 쓰고 진행을 하다 보니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어렵고.(참여자 4)

연차 남아 가지고 제 거를 썼지만 제가 일 년을 할 때는 내가 쓰기에 좀 부족하겠다.(참여자 3)

연차를 썼기 때문에 병원에 있지만 나도 그 연차 썼으니까 아무 문제는 없는데 병동이나 이런 간호부서장이 개입해 주면 좋겠다 하니까. 연차인 줄 알면서도 올린 거잖아요.(참여자 5)

**범주 3. 최선을 다하여 교수로서 자리하고자 함**

참여자들이 병원에 종사하면서 최신의 임상실무를 습득하고 있어 교육자로서 이러한 면이 실습교육에 도움이 된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고, 학생들에게도 최신 임상실무를 가르쳐 주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교육내용의 전달이나 수행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효과적인 교수법을 찾아내고자 노력하였다. 범주3의 주제묶음은 ‘최신의 임상실무 경험을 실습교육에 반영함’, ‘실습기관 직원이라는 위치를 심분 활용함’, ‘효과적인 교수법을 습득하고 싶은 바람’이었다.

**1) 최신의 임상실무 경험을 실습교육에 반영함**

참여자들은 병원에 종사하면서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맞추어 빠르게 변하는 임상실무를 접하면서 익혀왔던 것들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교육한다고 하였고 이에 대해 뿌듯해했다. 그러면서 학교의 교수들에게 배운 이론교육의 내용이 현재의 실무와 맞지 않는 것이 있을 때는 비교하여 학생들에게 알려주고자 노력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렇지만 교과목 지침서에서 제시한 학습내용에 충실하였는데 이것은 나름의 흐름을 깨지

않고 학습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충실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근데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는데 그 학교 책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웬지 이게 안 바뀌는 것 같아요.(참여자 3)

실제로 학생들이 ‘나는 이론적으로 이렇게 배웠는데 왜 현장에서는 이렇게 해요?’라고 묻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제가 바른 답을 전달해 줄 수 있어서 현장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참여자 4)

사실은 이 교재가 뭐 바로바로 해마다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이 교재가 현장을 따라오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있으면서. 그렇지만 항상 교재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재 위주로 그 실습은 하죠. 그러나 현장의 얘기를 덧붙여서 해주죠. 참고하라고.(참여자 4)

**2) 실습기관 직원이라는 위치를 심분 활용함**

참여자들은 자신이 종사하는 병원에서 실습교육을 진행하다 보니 실습환경에 익숙하고 병실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워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필요한 간호실무를 되도록 많이 볼 수 있도록 실행하였다. 때로는 잘 접하기 어려운 간호실무인 경우에도 환자 상황을 고려하여 자신의 판단하에 학생들에게 학습 기회를 주고자 하였다.

아무래도 부서장 하니까 딱 하루라고 지정돼 있지만 매일 같이 다니면서 그런 이게 실습과 관련되지 않은 것도 좀 많이 보여줬죠. 그게 이제 강점이죠. 왜냐하면 제 병원에서 실습하면서 다 보여 주고.(참여자 2)

학생들은 여러 명 이렇게 오면은 환자들도 놀래요. 그러니까 두 명만 들어오라고 하죠.(참여자 3)

교수님들이 실습 현장에 나와서 뭔가를 가르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저희는 직접 실제적으로도 간호를 하고 있고 또 임상 현장에서 뛰고 있는 멤버니까 학생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참여자 5)

**3) 효과적인 교수법을 습득하고 싶은 바람**

참여자들은 간호진단, 핵심간호술 등 학생 실습교육을 위한 관련 내용을 다시 공부하여 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준비했으며 그 과정을 즐겁게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실습교육 중에는 학생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교육 결과가 효과적이었는지 궁금

해하고 고민하였으며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학생교육에 대해 어려움을 느꼈다고 하면서 교육자로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효과적인 교수법에 대해 알고 싶어하였다.

결국은 책상에 앉아서 저도 공부를 해야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거잖아요.(참여자 4)

제가 이제 간호 진단을 오래전에 공부했고 그때 당시에 배운 진단하고 지금하고 조금 차이가 많이 났고... 그거를 다시 공부하면서 가르쳐줘야 돼가지고.(참여자 3)

교수님들은 워낙 많은 수(학생)를 이렇게 접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있으시지만 저희는 그렇게까지.(참여자 1)

제가 전달법에서 뭔가 부족한 그런 것 때문에 이 시간이 조금 효율적이지 못한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줘야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힘들었어요.(참여자 2)

집담회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론을 하면서 답을 이렇게 찾아서, 같이 찾아가는 그런 것도 좀 시도도 해봤고.(참여자 5)

#### 범주 4. 실습교육이 성찰의 계기가 됨

참여자들은 실습교육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업무와 자신의 부서 직원들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범주 4의 주제묶음은 '나를 돌아봄'과 '주변 환경을 돌아봄'이었다.

##### 1) 나를 돌아봄

참여자들은 학생들과 집담회를 하면서 학생들의 과제 발표나 자유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참여자가 미처 모르는 내용을 학생의 과제 발표를 통해 알게 되는 경험을 하기도 했고, 자신의 업무에서 그냥 지나쳤던 내용들을 발견하고 수정하거나 반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가르치면서, 아이걸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안 하고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참여자 1)

케이스스터디를 하면서 아, 내가 몰랐던 것들도 아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참여자 3)

##### 2) 주변 환경을 돌아봄

참여자들은 소속 병원이 간호대학생 실습교육기관이므로

임상실습지도교수인 자신뿐만 아니라 부서의 모든 간호사가 실습 중인 간호대학생들에게 기꺼이 교육하고 롤모델이 되어야 하는데 학생이 따라다니는 것조차 외면하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또한 학생 때의 실습지침서 내용을 잘 습득만 하고 있어도 신규간호사 시절이 본인뿐만 아니라 부서장과 병원 차원에서도 덜 힘들 텐데, 학생 시절 익힌 간호지식과 간호실무를 다 잊은 듯 리셋되어 실무에 투입되는 것이 의아하다고 진술하였다.

이제 교육병원으로서 저만 가르치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3교대를 하는 간호사들이 모두 거기에 좀 참여를 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에서.(참여자 2)

우리 직원들도 그거를 이론이 아니라, 외우고 있어야 돼요.(학생 때) 알았으면 현장에서 그걸 그대로 갖고 와야 되는데, 전혀 그거는 그냥 리셋하고 딱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죠.(참여자 1)

## 논 의

본 연구는 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간호사가 임상실습지도교수로 활동한 경험을 탐색하여 현상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자 수행되었다. 자료분석 결과 주요 범주는 '대학과 실습병원은 협력적 관계로 인식함', '이중적 역할로 힘겨움', '최선을 다하여 교수로서 자리하고자 함', '실습교육이 성찰의 계기가 됨'이었다.

본 연구결과 참여자들은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으로 실습 나오는 대학에서 임상실습지도교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적격자 추천의뢰가 왔고, 이에 소속 병원 최고간호관리자의 추천 또는 자발적 선택으로 임상실습지도교수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간호대학생의 전문적 실무 습득 및 함양을 위해 병원실습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간호대학을 같은 지역의 사회구성체로 인식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Song과 Kim (2013)의 전국 실습기관 236곳에 대한 조사연구에서는 실습기관의 관점에서 교수와 병원과의 의사소통이 5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와 임상실습기관 간 실습교육내용과 병원시스템 등에 대한 원활한 정보 공유는 학생의 실습 결과에 차이를 가져오므로(Song et al., 2010), 임상실습지도교수와 실습단위 현장지도자와의 실습 전 회의와 같은 교류를 통해(Kim, 1995) 상호 협

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두 기관 간의 정기적·비정기적인 워크숍, 포럼이나 협의회와 같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한편, 참여자들이 임상실습지도교수를 겸직하게 된 계기가 대학의 임상실습지도강사를 확보하지 못함에서 비롯된 것에서 임상실습지도강사를 구하기 어려운 간호대학의 현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임상실습지도교수는 학생들이 실습에 적응하도록 돕고(Kwon et al., 2002),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며(Han & Park, 2011; Kim & Park, 2019), 교수에 대한 신뢰를 높임으로써 학생들의 학업 참여를 유도하는 등(Kim et al., 2018) 실습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임상실습교육을 담당할 교육 역량을 갖춘 교수진의 부족은 질적으로 높은 간호교육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임상실습지도교원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가 단순히 연구대상 지역의 특성으로 인한 적격자의 수적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업무 내용이나 임금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한 것인지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임상실습지도교수 확보가 어려운 간호대학을 돕고자 임상실습지도교수를 겸직하게 되었지만 학생 실습교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겸직으로 인한 직업적·개인적인 고충이 많다고 하였다. 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으로 본인의 휴가를 사용하여 학생 실습교육을 수행하였지만, 자신의 소속 직장인 병원에서 실습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업무와 실습교육의 시간적 구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 상황에 곤혹스러워하였고, 개인적 생활을 위한 휴가 부족과 휴가 사용으로 인한 집중적 업무처리 등으로 직원으로서 임상실습지도교수 겸직이라는 이중적 역할에 대해 힘겨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자와는 직무가 다르지만 Shin 등(2017)연구에서 간호대학생 실습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 중 실습기관 소속 실습교육자인 프리셉터의 근무시간에 융통성을 주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휴가 중에도 업무 관련 연락을 받고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과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임상실습지도교수직을 지속하기에는 부족한 개인 휴가 등 임상실습지도교수의 이중적 역할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실습교육 시간에는 학생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Shin et al., 2017). 또한 간호학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임상실습지도교원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McPherson, 2019). 한편 실습교육 개선 방안의 하나로 Song과 Kim (2013)은 실습전담임상교수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는데, 다른 선행연구에서 학생들은 원하는 임상실습지도교수로 강사를 선호하였지만 전임교수가 이론과 실무를 더 전문적으로 연결시켜 주므로 실습교육에 더 적합하다고 하였고(Chung et al., 2015; Kim, 1996), 학생들이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실습교육을 위해 이론교육을 담당한 교수가 임상실습교육을 지도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ung et al., 2015).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지도교원 중 비전임교수가 전임교수보다 교수효율성이 훨씬 더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는데(Allison & Hirt, 2004), 이와 같이 연구마다 결과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고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었다.

참여자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의료현장에서 최신의 간호실무 경험을 보유한 간호전문가로 간호대학생에 대한 임상실습지도교수로서의 역할을 추가로 하면서 이중적 역할에 힘겨워 하지만 스스로의 성장과 간호대학생의 실제 간호실무를 습득시키고자 책임감을 가지고 교수로서도 발전을 추구하고 있었다. 현장실무를 따라가지 못하는 학교에서의 이론교육을 이해하면서 임상실무와 차이 있는 내용을 가려내어 병원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최신의 임상실무를 학생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였다. 또한 실습교육 병원이 자신의 직장이어서 실습현장 환경을 잘 파악하고 있고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워 상황에 맞게 학생들이 케이스를 접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등 소속 직원이라는 장점을 잘 활용하여 실습교육을 운영하고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실습교육을 수행 함에 있어 대부분의 임상실습지도교수는 해당 실습병원의 직원이 아닌 외부인으로서 실습지 상황 파악이 어렵고(Kim, 1995) 간호대상자나 실습지 시설 활용에 한계가 따르며(Lim et al., 2019; Shin et al., 2017; Yang et al., 2020), 경험하지 못했거나 새로운 내용에서 위축되어 이론에 치중하면서 교수로서 부족함을 느낀다고 하였다(Song et al., 2010). 학교교육이 현장의 간호실무를 따라가지 못하는 여건에서 간호대학생들에게 질적으로 수준 높고 최신 상태의 실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임상실습지도교수 대상의 역량 강화 방법으로 최신의 간호실무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외부인인 임상실습지도교수의 실습지 접근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유지된다면 한 학생에 대해 전임교원과 겸임교원이 실습교육을 같이 담당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 참여자들은 실습교육을 시작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교수자로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노력하였고, 특히 자신의 교수법에 대해 의문을 가지

면서 효과적인 교수법을 구현하고자 하였지만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였다. 이는 Kang 등(2014)이 임상실습강사를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에서 임상실습강사의 명확한 역할, 학생들의 지식 수준, 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실습지도가 어렵다고 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상간호사에서 교수로서의 성공적인 전환을 돕기 위한 오리엔테이션 제공과 교육 기술 등의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Suplee et al., 2014).

본 연구에서 대부분의 참여자는 집담회 중 학생들이 준비한 과제를 보면서 여전히 배울 내용이 있음을 깨닫기도 하며 참여자들 본연의 업무를 다시 점검하고 수정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Kang 등(2014)과 Lim 등(2019)의 질적연구에서 실습교육 경험이 학생들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폭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었고 성찰과 성장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지지한다. 참여자들은 학생들의 임상실무 습득에 일반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면서 학생실습교육에 관심이 없고 학생실습지도에 동참하지 않는 일부 동료 간호사들이 교육병원 간호사로서 책임 의식을 가지고 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일반간호사들은 실습학생을 바쁜 업무에 추가되는 부담스러운 짐으로 인식하거나 간략화된 방법으로 하는 간호술을 보여 줄 때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불편감과 감시당하는 느낌을 받는 심리적 부담(Choi et al., 2019; Song et al., 2010; Song & Kim, 2013)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임상실습교육 발전을 위해 이러한 부담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제공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Kim et al., 2019; Song & Kim, 2013).

본 연구에서 재직 간호사의 임상실습지도교수로서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한 결과,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을 하는 병원에 소속된 간호사가 임상실습지도교수를 겸직하는 경우 최신의 임상실무를 습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익숙한 병원시스템 및 환경에서 실습교육을 운영함이 커다란 장점이 되고 실습학생들에게도 최신의 임상실무를 수련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교수로서는 초보이므로 교수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오리엔테이션 제공과 교수법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공 등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병원 재직 간호사의 임상실습지도교수 경험을 통해 그들의 관점에서 실습병원 소속 겸직 임상실습지도교수가 운영하는 임상실습교육의 장점과 보완점을 확인하면서 간호교육에서 임상실습교육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근거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병원에 재직중인 간호사이면서 임상실습지도교수를 수행

한 경험에 대한 기술로 일 개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5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로 병원 재직 간호사의 임상실습지도교수 경험에 대한 현상을 모두 포함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제한점이 있다. 그리고 본 연구가 재직 간호사의 임상실습지도교수 경험에 대한 것으로 추후 학생의 입장에서 의미는 어떠한지 확인하기 위한 질적연구를 제언한다.

## 결 론

본 연구는 병원 재직 간호사의 임상실습지도교수 경험의 의미를 탐색하여 현상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자 일대일 심층면담을 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한 질적연구이다. 임상실습교육과 관련된 간호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참여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5명의 간호사였다. 자료분석 결과 주요 범주는 '대학과 실습병원은 협력적 관계로 인식함', '이중적 역할로 힘겨움', '최선을 다하여 교수로서 자리하고자 함', '실습교육이 성찰의 계기가 됨'이었다. 본 연구를 근거로 하여 병원 재직 간호사가 임상실습지도교수를 겸직하는 경우 실습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학습 내용의 전달을 위해 교수법 습득과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인의 본연의 업무와 실습교육의 시간적인 명확한 구분으로 이중적 역할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Allison, J. L. L., & Hirt, J. B. (2004). Comparing the teaching effectiveness of part-time & full-time clinical nurse faculty. *Nursing Education Perspective*, 25(5), 238-243.
- Choi, G. Y., & Lee, S. H. (2012). A Collaborative approach between college and hospital for nursing students clinical instruction. *The Journal of Kyungpook Nursing Science*, 16(2), 1-9
- Choi, I. S., Seo, M. J., & Jeon, M. Y. (2019). Clinical nurses' experiences in clinical practiceeduca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12), 399-412. <https://doi.org/10.14400/JDC.2019.17.12.399>
- Chung, M. S., Park, J. S., Ryu, E. J., Shin, G. J., Jun, H. Y., & Kim, B. J. (2015). Teaching effectiveness and adequacy of practical training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1(4), 550-560. <https://doi.org/10.5977/jkasne.2015.21.4.550>
- Colaizzi, P. (1978).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an, J. Y., & Park, H. S. (2011). Effects of teaching effectiveness and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on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8(3), 365-372.
- Kang, H. J., Bang, K. S., Park, J. S., Yu, J. Y., & Hwang, I. J. (2014). Clinical instructors' role experience in college of nursing.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3), 443-451. <https://doi.org/10.5977/jkasne.2014.20.3.443>
- Kim, E. M., Hong, J. Y., & Lee, E. K. (2018). Effects of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and professor trust on academic engage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5), 357-365. <https://doi.org/10.5762/KAIS.2018.19.5.357>
- Kim, J. M., Kim, J. K., Ryu, K. H., Yang, J. H., & Yang, J. J. (2019). Study on clinical practice education among 4-year nursing program in college. *Korea Society of Nursing Research*, 3(3), 23-36. <https://doi.org/10.34089/jknr.2019.3.3.23>
- Kim, J. S., & Park, S. J. (2019).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effectiveness,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of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competence. *Korea Society of Nursing Research*, 3(3), 13-22. <https://doi.org/10.34089/jknr.2019.3.3.13>
- Kim, M. A. (1996). A study of teaching effectiveness on clinical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ic of Nursing*, 26(4), 946-962. <https://doi.org/10.4040/jnas.1996.26.4.946>
- Kim, M. S. (1995). A study of faculty practice for clinical teaching.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1), 5-16.
- Kim, Y. S., Park, J. W., Kim, H. S., Yoo, M. S., Bang, K. S., & Park, J. H. (2007). Perception of professors and nurses on clinical practice teaching and organizational integration of colleges and clinical nursing departm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3(2), 292-300.
-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24). Nursing Education Accreditation Standards Book. <http://www.kabone.or.kr/notice/list/view.do>
- Kwon, S. B., Chi, S. A., & Jung, K. N. (2002). The role of clinical practice instructor expected by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8(2), 284-294.
- Lim, S. R., Hong, S. M., Kim, S. H., Kim, S. K., & Kim, Y. L. (2019). Lived experience of clinical nursing instructors' role in clinical practicum.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5(4), 484-495. <https://doi.org/10.5977/jkasne.2019.25.4.484>
- McPherson, S. (2019). Part-Time clinical nursing faculty needs: An integrated review.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58(4), 201-206. <https://doi.org/10.3928/01484834-20190321-03>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3). Health and Welfare Statistical Yearbook.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300&bid=0019&act=view&list\\_no=1479414](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300&bid=0019&act=view&list_no=1479414)
- Shin, S. J., Yang, E. B., Hwang, E. H., Kim, K. H., Kim, Y. J., & Jung, D. Y. (2017).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 of nursing education for clinical practice.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19(2), 76-82. <https://doi.org/10.17496/kmer.2017.19.2.76>
- Song, J. H., & Kim, M. W. (2013). Study on clinical education for nursing in hospitals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1), 251-264. <https://doi.org/10.5977/jkasne.2013.19.2.251>
- Song, M. R., Kim, I. K., & Kim, Y. K. (2010).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faculty and nurses on clinical nursing practicum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11(2), 106-118.
- Suplee, P. D., Gardner, M., & D'Emilia, B. J. (2014). Nursing faculty preparedness for clinical teaching.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53(3), 38-41. <https://doi.org/10.3928/01484834-20140217-03>
- Yang, K. H., Choi, E. J., Park, S. O., Ko, S. H., Choi, G. Y., Park, J. D., & Park, S. J. (2020). Policy support and flexible operation plan for qualitative improvement of clinical practice education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4(2), 37-51. <https://doi.org/10.34089/jknr.2020.4.2.37>
- Yu, P. S., Kim, E. S., Kim, H. K., Lee, S. H., Hyung, H. K., Eom, A. Y., & Kim, H. S. (2008). The perception degree of teaching effectiveness of nurses and nursing students on clinical nursing practicu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4(3), 311-320.